

# 이제 로스앤젤레스·시애틀 공항도 '짐 없는' 환승!

- 23일부터 인천에서 보낸 짐 최종 목적지까지 자동 연결, 환승시간 20분 단축
- 대한항공·델타항공 시작으로 ... 참여 항공사와 미국 내 공항 점차 확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지난해부터 미국 항공보안당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애틀란타·디트로이트·미네아폴리스 공항 도착 승객(환승객 포함)의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원격검색(IRBS, 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)을 6월 23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까지 확대한다.

\* 인천공항에서 실시한 수하물 보안검색 엑스레이(X-ray) 이미지를 미국에 전송하여 비행 중 도착 공항 직원이 원격 검색하고 이상 없는 수하물은 연결 항공편에 바로 탑재

□ 그간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, 수하물이 자동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취한 후 세관검사 및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통과하고, 환승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다시 위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.

○ 이제, 인천-로스앤젤레스 또는 시애틀 노선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은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곧바로 연결편에 탑승하는 '짐 없는 환승'이 가능해져 환승시간이 최소 20분(약 22.2% 감소)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.

\* 인천-로스앤젤레스·시애틀 내 환승(입국심사→수하물 수취→세관검사→체크인카운터 재위탁)에 통상 90분 소요되나 70분으로 최소 20분(약 22.2% 감소) 단축 효과 예상

○ 특히 시애틀 공항은 수하물 수취 후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를 받는 구조로, 수하물 수취가 생략됨에 따른 여객 편의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(DHS)\*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, 양국은 첨단 항공보안 기술을 활용한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해 환승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.

\* 교통보안청(TSA: Transport Security Administration), 관세국경보호청(CBP: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) 등이 소속되어 미국 국토안보를 총괄하는 연방 정부 부처

□ 이러한 수하물 원격검색은 미 관세국경보호청(CBP)이 제시하는 일정 기준\*을 충족한 대한항공 및 델타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하며, 인천-로스앤젤레스와 인천-시애틀 직항 승객은 물론 제3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인천공항 환승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
\* X-ray 이미지 적합성·전송률,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

○ 현재 인천-로스앤젤레스 노선은 대한항공이 하루 3편(단, 화·목요일은 하루 2편), 인천-시애틀 노선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하루 각 1편씩 운항하고 있다. '25년 두 노선의 이용객 수는 총 42.1만 명이며 이 중 로스앤젤레스-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30.1%에 해당하는 12.7만 명에 달한다. 환승객은 직접적으로 환승시각 단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, 도착 승객도 세관검사 시간이 줄어 신속한 수하물 수취가 가능해진다.

\* ('26년 하계 운항스케줄 기준, 인천-로스앤젤레스 또는 시애틀 항공편 정보)  
 인천→ 로스앤젤레스 : KE017편(14:35 출발, 매일), KE011편(19:40 출발, 매일), KE8015편(12:25 출발, 월·수·금 운항, ~'26.6.29까지만)  
 인천→ 시애틀 : KE041편(16:40 출발, 매일), DL196편(19:00 출발, 매일)

□ 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“이번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확대 시행은 첨단기술을 통한 보안성 제고는 물론 승객 편의 향상과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○ 이어 “양국간 항공보안에 대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서비스를 미국 내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참여 항공사도 점진적으로 늘려, 보다 많은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.”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공항정책관	책임자	과 장	안세희 (044-201-4232)
	항공보안정책과	담당자	주무관	전현준 (044-201-4235)
	인천국제공항공사 수하물운영2팀	책임자	팀 장	최진수 (032-741-5313)
		담당자	대 리	정광훈 (032-741-6967)



□ 수하물 원격검색 개념 (IRBS, 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)

- 항공기 도착 전 수하물 X-ray 이미지를 전송해 원격검색 완료(美), 수하물은 연결편에 직접 탑재(항공사), 승객은 짐 없이 환승

□ 수하물 원격검색 흐름도

①(인천) 출발전 보안검색 

(인천국제공항공사) 위탁수하물 X-ray 검색화면 수집



②탑승 

(인천국제공항공사) X-ray 검색화면 시스템 업로드  
(항공사) 승객 운송정보, 수하물식별번호 시스템 업로드




③이륙·운항 

(美 CBP) 항공기 도착 전 원격검색


\* 의심수하물은 추가검색을 위해 항공사에 통보



④(로스앤젤레스·시애틀) 환승공항 착륙 

(항공사) 수하물 분류작업 실시



⑤세관·환승검색 

(美 CBP) 일반 수하물은 검색 미실시

\* 의심수하물은 추가검색 실시 후 필요조치



⑥수하물 재위탁 

(승객) 수하물 수취 및 재위탁 생략, 환승 시간·절차 단축



⑦ 연결편 환승 

(항공사) 원격검색 완료 수하물을 환승 항공기에 탑재  
(승객) 짐 없는 환승 가능